

# 2단계 중앙공원 등 타깃... 1단계 확대 가능성도

### 부시장·시의회 의장실 등 전방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의혹 수사 사안 중요성 감안, 특수부 재배당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청과 시의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수사관을 보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행정부시장실과 부시장 부속실, 환경생태국, 감사위원실, 감사위원회 사무실, 시의장실과 시의장 보좌관실, 이메일 등 전산관련 부서, 세종시에 있는 한 정부종합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일부 피의자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했으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자료도 확보했다. 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공직자 통합메일 등을 들여다봤다. 이번 압수수색에 광주시 정부특보실과 관련 업체는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해 각종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찰서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해오다 이날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고발 내용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에 대한 의혹이다.

검찰은 확보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배정해 감사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형사1부에 배당했던 검찰은 최근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 성격상 특수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전담 수사를 특수부로 전격 재배당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할 정도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다만 추가로 누가 수사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지난 4일 특수부로 재배당했다"며 "또 관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자 지정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이 5일 광주시청 행정부시장실·공원복지과·감사위원회·광주시의회 의장실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세욱기자 dkoso@srb.co.kr

부서 공무원 등의 참고인과 복수의 수사대상자를 계속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1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가 1단계 사업으로 확대될 것인

지, 2단계로 마무리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특정감사 관련 조사를 위해 진행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1단계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선정기자 wordflow@srb.co.kr

## 대형 악재 만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동 걸리나

### 10월까지 시행자 협약 빠듯한데 일부 토지소유주들도 철회 주장 아파트 세대수 확대 등 특혜의혹도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앞두고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이 바람 잘 날 없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민간공원부지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한 특례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영터리 평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5일 오전 광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검찰은 5일 광주시청에 특수부와 수사과 소속 수사관을 보내 오전 10시부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사무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정중제 행정부시장실, 시 감사관실, 환경생태국, 공원복지과, 광주시의회 의장실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있는 사무실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담 경찰력과 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

며 분양가가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예상치 못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광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압수수색이 단행된 이날 오후에는 17년 만에 첫 삼을 뜨는 광주도시철도2호선 기공식이 예정돼 있던 터라 검찰이 '잔칫상에 재를 뿌렸다'는 격양된 반응도 나왔다.

광주시청 한 공무원은 "제기된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겠지만 지난 4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검찰이 하필 기공식 날 압수수색을 단행해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에 잔물을 끼얹고 말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일몰제 시행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갈 길 바쁜 상황에서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터지면서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앙공원의 아파트 세대와 층수를 확대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또 다른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중앙공원·중앙공원·영산강공원 등 총 7개 공원 토지 소유자 20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만 배 불리는 비리와 특혜로 물든 사업"이라며 철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시 관계공무원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

를 주장하고 있어 광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공원이 해제되지 않으려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오는 10월 안에 민간 시행자를 지정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까지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검찰 압수수색까지 단행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30% 이하에 아파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로 나머지 70% 이상의 면적을 매입,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유산 사업 '빛고을 마스터즈' 개최 무산

### 시 "내년부터 브랜드화 추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유산) 사업으로 올해부터 정기화할 예정이었던 '빛고을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이하 빛고을 마스터즈) 개최가 무산됐다.

광주수영대회 직후 빛고을 마스터즈를 개최해 수영 붐을 조성한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었으나 저조한 관심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레거시 사업이 시작부터 발목이 잡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부터 9월 1일까지 남부대국제시립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9 빛고을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가 취소됐다.

시는 애초 광주수영대회 테스트 이벤트로 빛고을 마스터즈를 검토했으나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광주수영대회 이후로 연기했다.

그리고 이마저 무산된 데 이어 최근에는 연내 개최도 취소됐다.

국내 마스터즈 대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남부대 시설 공사(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올해 빛고을 마스터즈 개최를 포기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내년에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창설한다는 복안이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기존 빛고을 마스터즈를 정례화하고 동호인 뿐만 아니라 선수에게까지 대상을 확대, 지역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 광주·대구시 공동 250억원 규모 달빛 혁신창업·성장지원펀드 결성

광주와 대구시가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달빛 혁신창업·성장지원펀드를 결성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 혁신창업·성장지원펀드는 대구시,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펀드로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했다.

달빛펀드는 운용기간 8년, 투자기간 4년으로 주요 투자대상은 광주시 소재 창업, 중소·벤처기업이다.

운용사로 선정된 인라이트벤처스(유)는 청년창업펀드, 융합콘텐츠펀드 등 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벤처캐피털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성장자금지원 등 기업성장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빛펀드를 통해 광주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광주·대구 지역 간 사업 및 기술 상호교류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